

2025학년도 학생-인권단체
자원활동 연계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모음집

2025학년도 학생-인권단체 자원활동 연계 프로그램 개요

일 정

2025년 3월 ~ 2026년 1월 / 총 11개월

목 적

참여자들이 각 인권단체에서 최소 2개월간 주1회 이상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자원활동 방식을 통해 인권단체의 고유하고 현실감 있는 활동 영역을 직접 경험하고, 인권 사각지대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며 인권활동가가 갖추어야 할 인권 감수성과 소양을 쌓는다.

결 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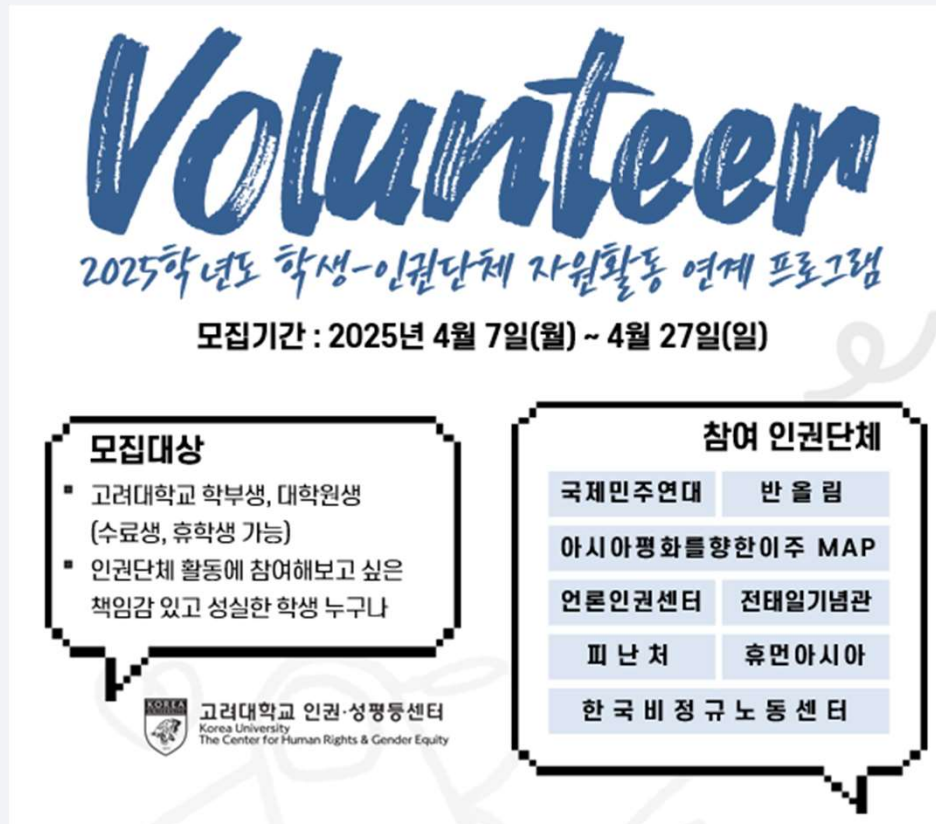
참여 학생 : 총 6명 (학부생 6명)

참여 인권단체 : 총 8개 단체

2025학년도 학생-인권단체 자원활동 연계 프로그램 개요



자원활동가 모집



Volunteer
2025학년도 학생-인권단체 자원활동 연계 프로그램
모집기간 : 2025년 4월 7일(월) ~ 4월 27일(일)

모집대상

- 고려대학교 학부생, 대학원생 (수료생, 휴학생 가능)
- 인권단체 활동에 참여해보고 싶은 책임감 있고 성실한 학생 누구나

참여 인권단체

국제민주연대	반 올 림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MAP	
언론인권센터	전태일기념관
피 난 처	휴먼아시아
한 국 비 정 규 노 동 센 터	

고려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
 Korea University The Center for Human Rights & Gender Equity

모집대상

- 고려대학교 학부생, 대학원생, 휴학생
- 인권단체 활동에 참여해보고 싶거나 사회 이슈에 관심이 있는 책임감 있고 성실한 학생 누구나

참여단체

- 국제민주연대 / 반올림 /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언론인권센터 / 전태일기념관 / 피난처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휴먼아시아

신청방법

- 인권단체 소개 및 참여안내문 확인
- 쿠카이브 또는 이메일 신청
- 인권단체에서 신청서 검토 후 선발

사전설명회

사전설명회 포스터



사전설명회 행사 사진



자원활동 파견

월간 활동일지(1)

2025학년도 학생-인권단체 자원활동 연계 프로그램 월간 활동일지			
(7)월 활동일지			
인권단체명	반응팀	참여자 성명	코세연
활동일시	활동내용		
7월 22일(화) 19:00~21:00	반올림에서 진행된 「자유라는 이름의 폭력」의 저자 김은정씨와의 토크쇼에 참석하였습니다. 김은정씨는 오랜기간동안 장애학을 다룬 연구자이며, 「자유라는 이름의 폭력」은 장애학과 관련된 사안을 중에서도 특히 '자유'라고 명명되면서 흔히 사람들이 장애-김은정씨는 이 책에서 단순 국가제도를 통해 장애를 인정받는 사람들 외에도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거나 어려움이 있는 이들의 상태를 보고 장애라고 지칭합니다.를 극복과 교정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비장애중심주의의 현상을 분석하고 비판합니다. 김은정씨 그리고 다른 토크쇼 참석자들과 함께 책 속의 내용, 그리고 그와 관련된 경험을 나누며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나 기억에 남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김은정씨가 장애를 규정하는 관점입니다. 지적장애, 신체장애 등만 보어도 그 양상은 매우 다양하며 더 나아가서 최근 해외에서는 트랜스젠더의 성별별지갑, 정신질환자 등까지 널리 아울러 '장애'라고 명명하고자 한 시도들이 많이 있어왔다고 들었습니다. 기존에 익숙했던 대로 국가제도에 의해 장애가 장애라고 '규정'되는 것은 종종 우리 사회에서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이 바라보는 방식을 편협하게 제한해버리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법과 제도와 규범에 의해 장애 혹은 비장애이라고 낙인 찍히는 논리는 단순 장애인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반올림에서 주로 조정 맞추는 신체장애 노동자들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장애운동과 또 다른 의제들을 계속해서 연결짓는 시도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7월 24일(목) 13:00~18:00 (5시간)	인천 영종도 소재의 스태츠칩코리아 앞에서 반올림, 그리고 건강한노동세상이 함께 진행하는 선전전을 진행하였으며, 이 경험을 이후에 내보낼 기사로 작성할 예정입니다. 반도체 제조사인 스태츠칩코리아에 2020년 현장실습생으로 입사했던 김선우씨(가명)는 1년간의 근무 후 특성 간 질환으로 간이식 수술을 받고 요양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측에서 질환의 원인이 근무환경의		

<p>위험으로 인한 신체임을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현재 김선우씨의 신체 인정을 위해 비슷한 시기 및 환경에서 일했던 동료사원들을 찾고자 본 선전전이 매달 열리고 있습니다. 본 활동과 연결지어 이전에 반올림에서 참석했다고 전해들은 기자회견의 내용이 생각났습니다. 반도체특별법과 산업학장의 일환으로 근 몇 년간 반도체 전문 고등학교들이 설립되고 있다고 합니다. 위 사례에서처럼 안전한 근무환경이 보장되지 아직 조성되지 않은 상태(실제로 직업병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상태)에서 학생들에게 아무렇지 않게 그 일을 권유해도 되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반도체산업은 가히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고 해도 될 만큼 거대한 산업이지만 이와 같이 그 이면도 깊습니다. 반올림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며 자세히 알게 된 만큼, 그 반도체 산업에서 일하기를 꿈꾸고 있는 고려대학교의 많은 학우들에게도 이를 알리고 같이 자차 개선해나갈 방법을 고민해 보자 제안하고 싶습니다.</p> <p>※ 필요시 칸을 추가하여 작성</p> <p>2025. 08. 03.</p>
--

월간 활동일지(2)

2025학년도 학생-인권단체 자원활동 연계 프로그램 월간 활동일지			
(12)월 활동일지			
인권단체명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참여자 성명	김재이
활동일시	활동내용		
12월 6일(토) 19:00~20:30 (1시간 30분)	이전에 진행한 노동자와의 인터뷰 내용과 그 과정에 있었던 느낀 점을 각자 이야기하고, 12월 19일 있을 최종 결과를 발표회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질지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2월 19일에는 토크쇼 형식으로 각자가 생각한 것들을 진솔하게 밝히는 시간을 가지고, 연말연초까지 최종 콘텐츠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주노동자와 돌봄노동자를 인터뷰한 다른 분들의 이야기가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돌봄노동자의 장담한 노동 현실이 주목했습니다.		
12월 19일(금) 18:00~20:00 (2시간)	최종 콘텐츠를 기반으로 토크쇼를 진행했습니다. 왜 자원활동을 신청했는지? 자원활동을 신청하기 전과 후 마음가짐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점은? 앞으로 어떤 활동으로 더 나아갈건지? 등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뤘습니다. 제가 생각한 배를 간단히 적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세상을 더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항상 '보이지 않는 노동'을 더 생각해보곤 합니다. 특히 플랫폼노동이나 예술노동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창작인, 예술인이라면 그들이 하는 창작은 노동이 아닌 걸까요? 딜레마를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2. 토크쇼가 끝난 후 비정규노동자 수가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대리운전 노조, 텔레마케터 노조, 우량 불매리스트를 폭로한 분, 청소년 노조 등 다양한 노동자를 만나면서 노조의 중요성과 연대의 힘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청소년 노동 인권단체 소속 수성자가 "청소년이 노동인권 시위에 나와 있다면, 왜 공부하지 않고 여기 나와있느냐?"는 타박보다는 그 저 연대해주셨으면 한다'는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수가 공모전 글감이 너무 감동적이라 공모작품 공개 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 활동이 끝난 후 이권희 교수님의 <노사관계론> 수업을 들을 예정입니다. 노동권보다 인간비 절감을 더 중시한다고 느꼈던 		

1월 5일(일)	<p>경쟁학적 관점에서 노사관계를 살펴보고 싶습니다.</p> <p>1월 5일 최종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저는 특성화고 졸업자 출신 노동자를 선택해 생애주기를 잘라 알기 형식으로 특성화고에 들어가기 전 / 특성화고에 들어간 후 / 고3 현장실습 / 현장실습 졸업 그 이후를 담은 글을 작성했습니다.</p> <p>뿌듯한 시간이었지만, 그와 동시에, 사실 제가 더 원했던 예술노동자를 인터뷰하지 못했다는 데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열정이라는 이표표 아래 희생당하는, 그마저도 돈을 더 요구하면 속물 같고 진정성 없어 보인다는 편견 속에서 남으려 희생당하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열정이 끝나더라도 예술노동에 대해 더 공부해볼 생각입니다. 활동 외에도 제가 더 관심있어하는 분야를 깨달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p> <p>2026. 01. 05.</p>
----------	--

결과보고서 작성자

반 올 림

- 형시언(정치외교학과)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 백승혜(국어교육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김채이(불어불문학과)
- 이주은(미디어학부)

반 올 림

형시언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작측보고서 검토, 영어 번역 진행, 기사 작성 등

반올림에서는 자원활동 기간 중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활동은 반올림 사무실에 방문하는 시간 동안 이루어졌지만, 외부활동을 수행하거나 기사를 작성하는 등 사무실 바깥에서 자원활동가로서 활동하는 경우 역시 적지 않았습니다. 반올림 활동 초반에는 주로 외부 활동에 참석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섬섬옥수>와 <무색무취> GV에 자원활동가로서 참석할 수 있었고, 반올림과 연대하는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과 관련하여 기사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단체의 이름을 걸고 글을 써 보는 것은 처음이었기에 많이 떨렸지만, 자원활동 관리를 맡아 주신 임다운 활동가님과 여러 상임활동가님들의 도움으로 좋은 기사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후정의행진이나 새사람행진과 같은 집회에도

반올림과 함께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집회 모두 기후위기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었던 만큼, 그곳에서 나오는 여러 이야기들을 들으며 기후위기를 바라보는 시야를 보다 넓힐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반올림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여러 업무에 참여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 두 가지를 꼽아본다면, 작측보고서 검토와 <회로를 이탈하다> 영어 번역 활동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작측보고서 검토 같은 경우 여러 반도체 회사들이 사내에서 취급하는 유해물질에 대해 내놓은 보고서를 검토하여 문제점을 파악하는 일이었습니다. 엑셀 작업에 능숙하지 않아 다소 까다로운 부분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흔히 반도체 기업(특히 이름이 잘 알려진 기업의

반 올 립

형시언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작측보고서 검토, 영어 번역 진행, 기사 작성 등

경우)에 대해 갖고 있는 믿음과 달리, 실제 기업들은 유해물질 관리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았습니다. 유해물질이 제대로 기입되지 않았거나 잘못 기입된 경우가 회사를 가릴 것 없이 비밀비재했으며, 그렇게 누락된 물질 가운데에는 유해성이 매우 높은, 화학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도 알 법한 물질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자료를 검토하며 작업장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매우 부실함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 반도체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자료는 실질적인 변화(과태료 부과, 법안 제정 등)를 이끌어 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회로를 이탈하다〉는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의 구술사를 다룬 기록집입니다. 저와 다른 자원활동가들은 주로 중요한 부분을 발췌하고, 이를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담당했습니다. 번역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시간을 들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전까지는 숫자로, 영정으로만 다가왔던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가진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생생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반도체 직업병 문제가 저의 이야기로 느껴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영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반도체 직업병 자체를 어떻게 의미화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고민 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를 단순히

반 올 림

형시언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작성보고서 검토, 영어 번역 진행, 기사 작성 등

‘victim’으로 옮기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 논의하면서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를 “피해자”로서만 바라보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6개월 남짓의 자원활동 기간동안,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시민단체의 활동을 가까이서 보고, 함께 활동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특히, 사무실에서 만난 반도체 상임활동가분들과 외부활동을 통해 만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분들의 모습을 보며 ‘사회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저의 꿈을 보다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백승혜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난민뉴스팀

저는 난민의 권리를 위해 힘쓰는 NGO인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Migration to Asia Peace)'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여러 개의 팀 중 난민뉴스(Refugee News, RN)팀에 소속되어 주로 난민뉴스 제작 및 운영을 담당하였고, 주요 행사를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우선 난민뉴스는 난민을 독자로 하는 뉴스로, 매주 한 편 이상 제작하여 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Google Drive의 과거 RN 폴더를 정리하고, 검색 엔진 상단 노출 전략을 구상하거나, 페이스북 응답 체계를 구축하여 난민들의 난민뉴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장학금, 난방비 지원 사업,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 확대 등 난민에게 필요한 생활·건강·정책·복지 정보를 뉴스로 제작해 단체 공식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 게시했습니다. 아랍어, 미얀마어, 암하러 등 다양한 언어권의 난민을 위해 AI 번역 활용 방침을 세우고, 페이스북 게시물에 6개 국어 제목을 도입했습니다. 단체의 페이스북에 난민뉴스의 정체성을 더 드러낼 수 있도록 난민뉴스 자체 로고를 제작하여 이를 바탕으로 페이스북 페이지의 배너를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뉴스를 분석하여 매년 재사용 가능 주제(예를 들어, 폭염 시 행동지침, 겨울철 동파방지 안내 등)를 분류했으며, 뉴스에 대한 피드백을 수집하기 위해 진행했던 초점집단토론의 설문지를 제작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지원했던 주요 행사로는 2025 한국난민포럼(KRF)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을 개설하는 등 홍보를 일부 담당하였고, 행사 전날 및 당일에 스태프로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백승혜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난민뉴스팀

참여하였습니다. 그 외로 용인 국제학교 학생들의 사무실 견학 시 업무 설명 등을 맡았습니다.

초기에는 업무 속도나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등을 스스로 점검하며 긴장을 늦추지 못하였고, 저 스스로 일을 찾아내는 능력에 대해 고민하기도 했지만, 자원활동가 동료와 스태프분과 대화하며 점차 방향을 잡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법무부에 전화를 걸어 정확한 정책 정보를 확인하고, SNS를 관리하는 등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일을 해볼 수 있었고, 뉴스를 만들기 위한 자료조사를 하며 우리나라의 난민 정책 및 제도의 현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사무실에 난민이 자주 찾아와 그들을 가까이서 보고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점이 제가 담당할 업무 및 근무지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난민’이라는 추상적인 집단으로만 인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을 각각 한 사람으로서 대하고 그들을 알아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난민에 대한 제도적 허점이 크고, 난민들의 처우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생각에 마음이 답답해지기도 했습니다. 난민뉴스를 제작하며 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난민포럼을 통해 난민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김채이 (불어불문학과)

노동 스터디 / 노동자 인터뷰 / 토크쇼 진행

사회를 더 뾰족하게 바라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런던베이글뮤지엄 파로사 사건, 쿠팡 새벽 노동자 사망과 산재 은폐 사례 등 노동자의 권리는 여전히 침해되고 있었다. 스터디를 통해 어렵듯이 알고 있던 문제들을 노동을 보다 학술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었다. 덕분에 예민한 시각으로 노동을 바라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복지법과 노사관계론을 들으며 학술적인 시야를 보다 넓히고 싶다는 마음도 생겼다.

특히 기호운 국장님께서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많은 배려를 해주셨다. 여름방학 5주간 해외 교환학생을 떠나는 바람에 노동 스터디에 참석할 수 없을 때도 있었다. 그러나 줌으로

원격으로나마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셨고, 덕분에 나도 스터디 선정 도서를 해외에서 읽어보며 개념을 정리할 수 있었다. 중간고사 / 기말고사 기간에도 시험과 활동이 겹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써주셔서 바쁜 와중에도 노동센터 활동에 집중할 수 있었다.

덕분에 새롭게 관심을 갖게 된 노동 분야는 ‘예술노동’이다. 예술은 흔히 노동으로 인식되지 않고, 좋아서 하는 일이니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속물처럼 여겨지며 ‘열정페이’라는 이름으로 착취가 은폐되어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 역시도 예술가를 노동자가 아닌 존재로 바라보며 이러한 인식에 무심코 동조하고 이를 계기로 예술노동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하며, 다음에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김채이 (불어불문학과)

노동 스터디 / 노동자 인터뷰 / 토크쇼 진행

다시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면 예술노동자를 직접 인터뷰해 볼 계획이다.

사회의 문제를 인식하고는 있지만 무엇이, 왜 잘못되었는지 명확히 짚기 어려운 분들, 인권에 관심을 갖고 이를 더 깊이 이해해보고 싶은 분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 노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분들께 이 활동을 적극 추천한다. 나 역시 인권과 노동이 무엇인지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지만, 이번 활동을 통해 그 의미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은 (미디어학부)

비정규노동자 인터뷰 및 자유형식 글 작성

한국비정규센터 자원활동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우선 매달 비정규노동 관련 스터디를 진행합니다. 활동 참여자들이 돌아가며 발제를 하면, 스터디 당일에 각자 조사해온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누며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는 비정규직 노동자 인터뷰 활동이 있습니다. 각자 관심 있는 분야를 선정하면, 센터 측에서 노동자분들을 섭외하고 인터뷰 자리를 마련 해주셨습니다. 이번 자원활동에서는 이주노동자, 돌봄노동자(요양보호사), 현장실습생 인터뷰가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언론인을 지망하고, 노동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책과 기사로만 접했던 노동 문제를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어 이번 자원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센터에서 선물해주신 <정의로운 노동> 등 서적을 읽으면서, 우리나라 비정규노동의 실태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자원 활동 기간과 인턴 기간이 겹쳐 스터디 활동에는 아쉽게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참여한 활동가분들의 소감에 따르면 매달 서로 다른 분야의 노동을 공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자원활동의 장점은 당사자와 직접 만나 노동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한국에 온 이주노동자의 노동 환경과 생활을 알아보고 싶어 이주노동자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은 (미디어학부)

비정규노동자 인터뷰 및 자유형식 글 작성

인터뷰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경기도 광주에서 근무하는 인도네시아 출신 노동자분과 인터뷰하게 됐습니다. 당사자분과 대화를 나누며 이주노동자들의 생활과 노동 환경, 고충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한 편의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자원활동가들은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자유형식의 글을 작성한 뒤 ‘격월간 한국비정규노동’에 기고하게 됩니다. 노동자분과의 대화를 통해 비정규노동에 대해 고찰하고 느낀 바를 글의 형태로 담아내고 공유할 수 있어 뜻깊었습니다.



고려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
KOREA UNIVERSITY
The Center for Human Rights & Gender Equity